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전개 양상

윤정선*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조경학과 교수

The Aspect of Modern Garden Culture Development in Korea

Yoon, Jungsun* · So, Hyunsu**

*Master Candidat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trends of modern garden culture in South Korea, keywords related to the subject were extracted from monthly magazines, news articles, books, research papers, and websites, and search and data collection were repeated to extract key events and arrange them in chronological order. Four periods were identified with reference to specific events: the Gyeonggi Garden Culture Expo (2010), the enactment of garden laws (2015), and the COVID-19 pandemic (2020).

In the first period (pre-2009), private botanical gardens opened, indoor gardens emerged, and the popularization of garden-related information took place. In the second period (2010~2014), garden expos were held, garden artists emerged, community garden culture was activated,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including the launch of specialized garden magazines. In the third period (2015~2019), the Korea Forest Service established legal frameworks, designated national, local, and private gardens, garden industry associations was formed, and professional personnel was trained. In the fourth period (2020~2023), there was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gardens, and government and local initiatives for garden projects intensified. Gardens were integrated with advanced technology, broadcasting, and the arts, and universities introduced garden studies as a major. Garden culture activities were categorized into garden creation, exhibitions and events, garden education, garde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dissemination of garden information.

Activities such as the creation of gardens, exhibitions and events, garden legislation, garden education, garden R&D, and garden information dissemination can be considered characteristics of modern gardening culture in South Korea.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gardening culture, individuals such as garden designers, citizen gardeners, and landscape professionals, companies like landscaping, construction and media companies,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universities, societies and centers, and government bodies have actively participated.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government, academia, industry, and the public, l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in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have formed a regional network where local governments execute projects. This collaborative network is the fruition of South Korea's modern gardening culture.

Key Words: Garden Project, Garden Exposition, Garden Artist,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So, Hyunsu,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outh Korea, Phone: +82-2-6490-2848, E-mail: hss@uos.ac.kr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현대 정원문화 전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월간지, 뉴스기사, 단행본, 논문, 웹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고, 검색과 자료 수집을 반복하여 주요 사건들을 추출하고 시간 순서로 배열하였다. 정리한 정보에서 현대 정원문화의 변곡점으로 파악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2010), 정원 법률 공포(2015), 코로나 팬데믹(2020)을 기준으로 4개 시기를 구분하였다. 제1기(2009년 이전) 정원문화 태동기에는 사설 식물원 개원, 실내정원 출현,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제2기(2010~2014년) 정원문화 발아기에는 정원박람회 개최, 정원작가 등장, 공동체 생활정원문화 활성화, 전문단체 설립, 전문잡지가 창간되었다. 제3기(2015~2019년) 정원문화 성장기에는 산림청의 법제도 마련, 국가정원 · 지방정원 · 민간정원 지정, 정원산업 단체 설립, 전문인력이 양성되었다. 제4기(2020~2023년) 정원문화 확산기에는 대중의 정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원사업 수행, 정원과 첨단기술 · 방송 · 예술 접목, 대학교에 정원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정원 조성, 전시와 행사, 정원 법제도, 정원 교육, 정원 연구 개발, 정원 정보 확산과 같은 활동은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문화 전개 과정에 정원작가, 시민정원사, 조경 전문가 등 개인과 조경설계 · 시공업체, 건설사, 언론사 등 기업, 대학교, 학회 · 협회 · 센터 등 비영리법인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였는데, 법제도를 마련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산림청을 필두로 지방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산 · 학 · 관 · 민이 연계된 지역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결실이다.

주제어: 정원사업, 정원박람회, 정원작가, 산림청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변화된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에서 1980년대 이후 확대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하여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 양식이 바뀌었다. 또한, 도시화를 위한 개발과 주거 환경 정비 과정에서 주택 외부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일이 간과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 정원은 소수자의 전유물이 되고 주택정원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다. 이는 정원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변 토지이용 변화로 정주성이 유지되기 어려워짐으로써 야기된 문제라고 지적된 바 있다(조동범 등, 2007).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1.5%가 아파트, 30.4%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단독주택 거주자 중에서 고령 가구, 소득 하위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계층 특성상 정원 생활을 제대로 향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계층에서도 아파트 거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강미나 등, 2022).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대중에게 정원보다 공원 문화가 익숙해졌으며, 정원은 소규모 사적 공간, 공원은 대규모 공적 공간이고, 정원은 다양한 식물이 있는 공간, 공원은 조형물과 시설물 위주로 수목의 그늘이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되어 왔다(박미옥, 2018). 그런데 최근 정원이 공적 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실천적 행위가 일어나는 동시에 시각 · 정서적 만족과 건강

에 영향을 끼치는 공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보인다(우경숙과 서주환, 2016). 정원이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정원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예전에 없던 정원작가라는 직업군이 등장하였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정원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권진욱 등(2021)은 '정원문화'를 "정원을 매체로 하여 그 안에 담기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 내용물'과 과정에 의하여 표출되는 '문화적 현상'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정원 활동들이 정원문화를 만들었으며, 이런 현상들로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원문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조혜령과 성종상(2016)은 19세기 영국의 근대성과 왕립원예 협회(RHS)의 식물 수집과 연구, 원예 및 가드닝 전문 서적 출간, 첼시플라워쇼 개최 등의 활동이 영국만의 대중적 정원 양식을 이끌었다고 고찰하였다. 이렇게 영국은 회원들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민간단체가 오랜 시간 정원문화를 이끌어온 것인데, 우리나라는 공공이 정원문화 형성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며, 정원을 향유하기 어려운 주거환경의 여건에서 속성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은 건강한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원문화 연구는 전통정원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지만, 현대 정원문화와 관련해서는 심주영과 조경진(2015)이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을 중심으로 도시 정원 가꾸기의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박세영(2021)은 정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와 정원진흥계획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김선화와 이정(2021)은 순천시를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참여 동기와 만족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호우(2018)는 우리나라 정원박람회의 프로그램 특성을 분석하고, 정소영 등(2018)은 2015년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를 중심으로 정원박람회에 나타난 디자인 경향을 연구하였으며, 김태원 등(2023)은 2013년과 2023년에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권진욱 등(2019)은 텔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조성아와 성종상(2019)은 민간정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민간정원 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세환(2018)은 정원문화 진화의 원인과 향후 방향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이광희(2021)는 국외 정원문화와 정원 도시 조성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안명준(2023)은 동양적 자연관에 기초한 정원도시론을 모색하는 등 도심 정원 가꾸기, 정원과 정원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정원 제도 평가와 개선 방향, 정원박람회 프로그램, 정원 도시 조성 등 정원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접근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를 통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정원문화가 확산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정원문화를 견인하였는지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범주를 가시화하고 정원문화 활동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전개 양상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우리 주변 복잡한 사회현상을 읽어내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로서, 텍스트를 범주화하는 코딩 방법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원문화 활동을 통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시기별 흐름을 파악하고, 축적한 정보에 대한 공시적 접근으로 관련 용어와 정원문화 활동에 개입한 주체라는 관점으로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현대적 정원은 일반적으로 옥외에 식물과 다른 형태의 자연을 경작, 전시,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을 지칭하는 '가든'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다(김순기 등, 2023).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현대 정원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인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정원을 다룬 전문 자료로서 월간 환경과 조경,

월간 가드닝, 라펜트, 한국조경신문 등 조경전문지, 게릴라 가드닝, 아름다운 정원 작품집 등 단행본, 식물원, 수목원, 산림청, 한국조경학회, 식물유통업체 등 정원 관련 기관과 단체의 웹사이트, 학술 논문, 블로그, 카페, SNS 등에서 정원 관련 사건들을 추출하였다. 다음 과정으로 세로축에는 사건 발생 연월, 가로축에는 사건의 주체와 내용을 정리하여 정원문화 활동을 코딩하였다. 정원문화 전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복된 내용은 처음 등장한 사건만 코딩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작업하면서 새롭게 접하게 된 사건들은 관련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입력하였다. 약 1,000건의 정보 조사 분석과 범주화를 통해 정원문화 활동의 경향성을 발견하여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를 구성하는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원문화 시기 구분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 bigkinds.or.kr)¹⁾에 키워드로 '정원문화'를 입력하여 추출된 기사로 연도별 빈도를 고찰하였다. 언론 매체에서 '정원문화'로 언급된 사건들을 정량 분석한 것이며, 적합한 키워드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지 선정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에 대응하여 연구의 대표성을 지닌 '정원문화'로 검색 키워드를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을 지니는 법률, 정책 자료, 단행본, 학술 논문, 학술 보고서, 산업동향 보고서, 신문 기사, 유튜브, 정원누리, 학협회, 대학, 방송사 등 웹사이트에서 시기별 정원문화를 설명하는 주요 사건들의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함으로써, 현대 정원문화의 시기별 전개 양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특성으로서 새로 등장하거나 사용된, 정원을 조성하는 사람과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 이해, 그리고 다양한 주체의 등장과 기여에 포커스를 두어 정원 활동의 유형별 수행 주체들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II. 현대 정원문화의 시기별 흐름

1. 현대 정원문화의 시기 구분

정원 관련 자료들을 수집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흐름에 변화가 있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2010), 정원 법률 공포(2015), 코로나 팬데믹(2020)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정원문화 활동이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경계로 하여 정원문화 흐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현대 정원문화 제1기(2009년 이전) 정원문화 태동기, 제2기(2010~2014년) 정원문화 발아기, 제3기(2015~2019년) 정원문화 성장기, 제4기(2020~2023년) 정원문화 확산기로 명명하였다(표 1 참조).²⁾

표 1. 시기별 주요 정원문화 활동

구분	정원문화 사건	정보 제목	키워드	정보 출처	날짜 ^a
제1기 (2009년 이전): 정원문화 태동기	시설 식물원과 정원문화 선각자들의 기여	외도보타니아, 천리포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 한택식물원	식물원, 수목원	웹사이트	-
		허브나라이야기	식물원	단행본	2011. 11
		홍경숙 원예예술촌 회장 '정원문화 공로상' 수상	정원문화	한국조경신문	2016. 5. 4
		정원은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원문화	안산뉴스	2020. 6. 17.
	실내정원 출현	실내조경의 이해와 활용	실내조경	건설기술	2015
		실내정원 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	실내정원 설계기준	학술 논문	1983
		실내조경에 관한 설계 제안: 호텔 건물을 사례로	실내조경, 호텔	학술 논문	1986
		아파트 실내조경의 기초적 연구	실내조경, 아파트	학술 논문	1987
		실내조경에 있어서 식물 활용방안 연구	실내조경 식물	학술 논문	1988
		우리나라 실내조경식물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대형건물의 Lobby를 중심으로	실내조경 식물	학술 논문	1989
	식물과 정원 정보의 대중화	한국종자나눔회, 태광식물원, 대림원예종묘	식물 정보, 통신판매	웹사이트	-
		아름다운정원 콘테스트 작품집	정원 콘테스트	단행본	2020
	공공 영역의 정원문화활동 시작	경기녹지재단, 옥상녹화사업 추진	옥상녹화, 경기도	뉴스와이어	2005. 3. 31
		경기농림진흥재단, '자투리공간 녹지조성사업' 큰 호응	녹지 조성, 경기도	기호일보	2007. 11. 11
		경기도녹지재단-아름다운 정원대상 공모	정원 공모, 경기도	경인매일	2006. 6. 13
		경기도 조경가든대학 교육생 모집	조경가든대학, 경기도	라펜트	2011. 2. 2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책화 과정과 동인에 관한 연구	정원박람회, 순천	학술 논문	2014
제2기 (2010~ 2014년): 정원문화 발아기	정원박람회 개최	2010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박람회, 경기도	월간 환경과 조경	2010
		'순천만정원박람회', 산림청 10대 뉴스, 전남도 올해 최대 뉴스 선정	순천만정원박람회	한국조경신문	2013. 12. 23
	정원작가의 등장	황지해 작 "해우소 가는 길" 한국 최초 영국 첼시 플라워쇼 아티잔가든 영역 출품작 선정	첼시플라워쇼	월간 환경과 조경	2011. 1
		코리아가든쇼 대상, 권혁문 작가 선정	코리아가든쇼	한국조경신문	2014. 4. 23
	공동체 생활정원문화 전개	건국대 쿨라워, 애음 틈타 '꽃으로' 거리 점령	게릴라 가드닝	환경과 조경	2017. 11. 1
		도시 텃밭 늘리기, '사람'이 키워드	도시 텃밭	라펜트	2011. 12. 15
		귀농 귀촌, 경기도가 설계해 드려요	텃밭정원, 경기도	주간현대신문	2012. 3. 16
		도시농부 일상, 갤러리 속으로	도시농부, 전시	라펜트	2012. 4. 13
		서울정원박람회, 17일 개막… 신개념 '가든쇼' 이목 집중	가든푸드쇼	뉴스와이어	2012. 5. 16
		경기도 '한평 텃밭정원 꾸미기 공모전' 개최	텃밭정원, 경기도	라펜트	2014. 8. 1
		녹색도시 위한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민 녹색문화운동, 서울시	한국조경신문	2017. 9. 18
		도시, 정원을 꿈꾸다(2015 경기정원문화대상 수상작품집)	정원문화대상, 경기도	단행본	2015. 9. 14
		"착하게 돈 벌 사람 모여라" (주)가든프로젝트 지역사회 대상 창업 취업 설명회	사회적 기업	한국조경신문	2015. 1. 12

표 1. 계속

구분	정원문화 사건	정보 제목	키워드	정보 출처	날짜 ^a
제2기 (2010~ 2014년): 정원문화 발아기	전문단체 설립과 전문잡지 창간	국내 최초의 '정원사' 협동조합	정원사 협동조합	라펜트	2014. 1. 24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창립총회 18일 개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조경신문	2014. 10. 8
		한국정원문화협회 창립총회, 문체부 사단법인 단체 추진	한국정원문화협회	라펜트	2013. 12. 11
		조경학회 정원학 연구센터, '정원학 새로운 지평' 논하다	한국조경학회, 정원학 연구센터	한국조경신문	2014. 11. 25
		정원잡지 두 달새 3권, 정원 열풍 실감	정원잡지	라펜트	2013. 5. 19
제3기 (2015~ 2019년): 정원문화 성장기	산림청의 정원 관련 법제도 마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 법률, 산림청	법률	2015. 1. 20
		국립수목원, '가보고 싶은 정원 100' 발간	정원, 국립수목원	한국조경신문	2017. 8. 7
		우리 꽃과 정원 알리세요!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정원 콘테스트, 산림청	라펜트	2018. 5. 25
		산림청, 정원 조성 사업 4년 만에 40배 증가	정원조성, 산림청	환경과 조경	2023. 1. 4
	지자체의 정원 사업 활성화	경기농림진흥재단, '마을정원 만들기' 1억 원 지원	마을 정원,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2015. 12. 4
		2015 서울정원박람회 '무엇을 볼까?'	서울정원박람회	라펜트	2015. 9. 29
		서울시 '2016 시민조경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울, 시민조경아카데미	라펜트	2016. 3. 24
		LH, 녹색복지 실현 위해 '마을정원 조성'	마을 정원, LH	한국조경신문	2017. 11. 14
		부산 등 8개 마을공동체 경원 정부3.0으로 가꾼다	마을 정원, 지자체	머니투데이	2016. 2. 4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지정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정원누리 홈페이지	2023. 8.
		'민간정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민간정원	학술 논문	2019
	정원산업 단체 설립	한국가드너협동조합, 한국민간정원협회	협동조합, 협회	웹사이트	2023. 8.
		가든프로젝트, '한국정원산업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정원산업협동조합	라펜트	2019. 3. 3
	정원 전문 인력 양성	청년 정원서포터즈 14개팀 112명 선발… 정원문화 확산	정원인력 양성, 산림청	그린포스트코리아	2016. 10. 31
		순천대 조경학과,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순천대정원문화진흥사업단	아시아경제	2014. 10. 31
제4기 (2020~ 2023년): 정원문화 확산기	대중의 식물과 정원 관심 증대	코로나19가 바꾼 중요 키워드 '정원'… 세계는 가드닝에 집중	코로나, 가드닝	한국조경신문	2021. 3. 15
		독일, 코로나 시대 도심 속 정원 '클라인 가르텐' 인기	코로나, 정원	유튜브(YTN)	2021. 8. 21
		블로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본 COVID-19 전후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의 시민 이용행태 및 관심도 변화	코로나, 도시공원	서울연구논문	2020
		팬데믹이 쏘아 올린 '식물 집사' 붐… AI 재배 앱·식물호텔 등장	코로나, 식물	조선일보	2022. 7. 11
		국립수목원, 정원 활동, 코로나블루 등 치유 효과	치유 정원, 국립수목원	한겨레	2022. 1. 18
	정부와 지자체의 정원 사업 본격화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2021~2025)	정원진흥 기본계획, 산림청	산림청	2021. 3.
		광명시, 정원문화 관련 조례로 국가정원 조성 토대 닦는다	정원 조례, 광명시	라펜트	2021. 8. 20
		정원문화산업 진흥, 정원 관련 전담 부서 필요해	지자체 정원 부서	라펜트	2017. 2. 9

표 1. 계속

구분	정원문화 사건	정보 제목	키워드	정보 출처	날짜 ^a
정부와 지자체의 정원 사업 본격화	서울시, '정원문화진흥조례' 공포	정원 조례, 서울시	라펜트	2016. 7. 15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17일 개막! 주제는 '정원테라피'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라펜트	2023. 5. 17	
	무안군, '제1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9월 14일 개최	전남 정원 페스티벌	라펜트	2021. 7. 18	
	산림청, '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 공모전 개최	정원 콘테스트, 산림청	한국조경신문	2021. 4. 16	
	전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첫 공모	정원 콘테스트, 전남	라펜트	2020. 5. 21	
	'정원도시 서울' 구상 발표… "365일 녹색으로 물든다"	정원도시, 서울	환경과 조경	2023. 5. 24	
	피트 아우돌프, 태화강국가정원에 정원 조성 위한 일정 시작	아우돌프, 태화강국가정원	라펜트	2021. 9. 8	
정원과 첨단 기술 접목	산림청 '스마트 가든 조성 · 관리 지침서' 배포	스마트가든, 산림청	라펜트	2020. 5. 1	
	메타버스에 '창덕궁 후원' 구현됐다	메타버스, 정원	라펜트	2022. 12. 23	
	[조경시대] 메타버스, 허상이 아닌 미래	메타버스, 조경	한국조경신문	2022. 4. 6	
정원과 방송, 예술 접목	EBS '소소한 행복, 정원일기': "중정을 부탁해"	정원 방송	문화뉴스	2020. 11. 28	
	KBS 다큐인사이트의 '인생정원'	정원 방송	웹사이트(KBS)	-	
	KBS 다큐온, 나의 정원 우리들의 정원	정원 방송	웹사이트(KBS)	-	
	자연의 순환과 시간의 흐름… 조경과 건축이 만드는 생태적 가치 '시간의 정원'	정원 전시	라펜트	2022. 6. 29	
	현대미술 · 첨단과학기술 결합… '메타_가든'전 개최	정원 전시	광주타임즈	2021. 7. 18	
	소다미술관, 'Open Museum garden: 우리들의 정원' 展 개최	정원 전시	라펜트	2021. 5. 9	
	정원을 매개로 재해석한 덕수궁의 어제와 오늘… '덕수궁 프로젝트: 상상의 정원' 전 열려	정원 전시	한국조경신문	2021. 9. 9	
	대학의 정원학과 개설	"정원문화산업학과, 다양한 분야가 모여 더 큰 시너지 내"	정원학과, 대학	라펜트	2020. 11. 10

^a 기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간성을 파악하여 날짜를 작성하였으며,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홈페이지 정보의 경우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다.

제1기는 현대 정원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 단계로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던 2009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사설 식물원들이 개원하였고, 실내정원이 등장하였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식물과 정원 정보가 대중에게 유통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원문화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선각자들이 등장하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녹지 사업이 정원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2기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처음 개최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이 이루어졌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었으며, 정원작가가 활동하고 서울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정원문화가 공동체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정원사협동조합, 한국정원디자인

학회, 한국정원문화협회 등 정원 단체가 설립되고, 정원 잡지 3종이 창간되었다.

제3기 산림청의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를 기점으로 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원이 법적으로 정의되고 분류되었으며, 국가가 정원 조성과 정원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의 정원 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한국민간정원협회와 한국정원산업협동조합 설립 등 정원산업 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정원 전문 인력이 양성되었다.

제4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중이 정원과 식물에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21년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년)이 발표되고, 정원 분야가

그린뉴딜 등 정부 핵심 아젠다로 반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원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정원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가든 기술이 확산되었으며, 정원 방송이 제작되고 정원과 결합한 예술 전시로 정원이 대중에게 가까워졌다. 대학교에서는 조경학과와 원예학과를 중심으로 정원학과와 정원 전공이 개설되었다.

빅데이터에서 정원문화 관련 5,346건의 기사를 추출하여 연도별 빈도 그래프를 작성하였다(그림 1 참조). 그래프는 2008년까지 바닥에 가까운 수평선을 그리다가 2010년 정점을 만든 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5년 이후 짧은 구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올라가다가 2020년 유례없는 기울기로 상승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그래프의 변곡점과 일치함으로써 시기 구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2. 시기별 현대 정원문화의 전개 양상

1) 제1기(2009년 이전): 정원문화 태동기

(1) 사설 식물원과 정원문화 선각자들의 기여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이 커졌지만 녹지를 제공하는 공간에 집중함으로써 대중의 식물에 대한 갈증은 사설 식물원들이 채워 주었다. 허브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공간인 허브나라농원과 유럽식 정원을 표방한 외도보타니아가 1995년 개원하였고, 천리포 수목원과 아침고요 수목원이 1996년에 개원하였다. 한택식물원도 1980년대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2003년 개방하였다. 이들

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개인의 오랜 열정으로 구축되었으며,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물 전시, 식물종 확보와 보호, 식물 연구와 교육과 같은 전문적 활동까지 담당하였다.

1990년대에 정원문화 선각자들에 의해서 정원 교육장 운영과 정원 전시회 개최가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손바닥정원연구회’ 회원들이 남해에 원예예술촌을 조성하여 마을 전체를 정원을 테마로 한 관광 산업으로 연결하기도 하였다(한국조경신문, 2016). 2008년에는 푸르네정원문화센터가 설립되어 1일 정원여행, 정원문화축제, 정원설계공모전, 가든블러너티어 양성 등 정원문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원이 눈으로 보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놀이가 되고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다. 정원디자이너라는 직함으로 정원의 초화류를 세심하게 디자인하여 시공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2) 실내정원의 출현

197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도시 내 자연공간이 축소되자 정서적 측면에서 실내정원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실내조경이 보급되었다(김원기, 2015). 1980년대에 다수의 실내조경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아파트 베란다, 상업 건물, 공공 공간에 실내정원이 조성됨으로써 개인이 정원을 소유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연을 접하게 되었지만, 건물에 채광, 통풍, 토심 등 식물 생육 환경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은 여건에서 정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대중적 유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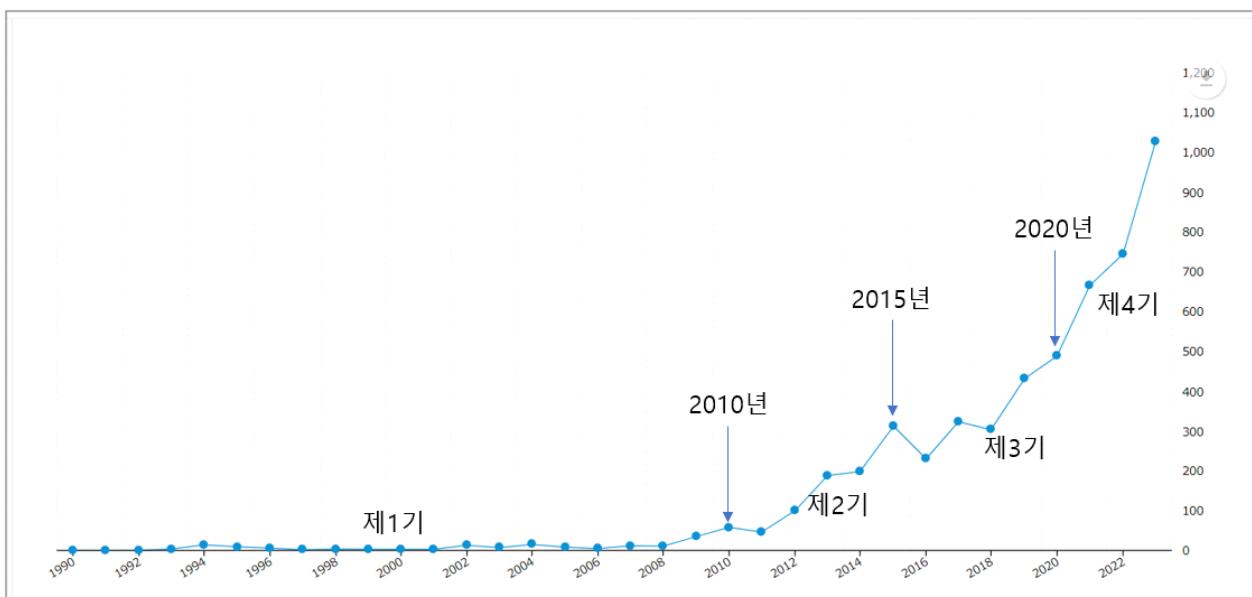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정원문화 관련 기사의 빈도 그래프

(3) 식물과 정원 정보의 대중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원예나 정원 관련 도서가 적어서 일반인들이 정원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물의 이름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제대로 키우는 방법도 알 수 없었다. 교외에 자리한 식물원들은 여가 공간이었으며, 접근성이 떨어져서 식물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식물과 정원에 대한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2004년 다음 카페에 ‘한국종자나눔회’가 개설되어 회원들 사이에서 식물과 정원 정보가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한국종자나눔회는 2023년 8월 기준 44,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참여로 꽃과 식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활동도 지역별 모임, 식물 공동구매, 식물과 정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후 인터넷 카페와 다른 유형으로서 포털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여 보유한 식물과 정원 사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관심사를 공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국외 교포나 여행자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식물과 정원 사진들은 국내 원예가들의 안목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 유튜브(2005년), 페이스북(2006년), 펍테레스트(2009년), 인스타그램(2010년)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며 다른 나라의 정원 정보도 접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원예종묘(2002년), 태광식물원(2006년), 대림원예종묘(2007년)의 통신판매 서비스로 원예가들이 국외 식물을 구할 수 있었다. 유통망이 축약했던 지방에서도 접근 가능하였으므로 정원 식물과 정보가 확산되면서 식물을 잘 조합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려는 일부 매니아층의 욕구와 관심을 이끌었다. 2005년에는 공중과 방송에서 타사 퓨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타사의 정원과 라이프 스타일은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 프로그램인 ‘KBS 아름다운 정원’이 제작 방송되어 정원과 원예 지식을 전파하였다.

(4) 공공 영역의 정원문화 활동 시작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이전에는 주로 개인이 정원문화를 이끌었지만, 지방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녹화사업도 조금씩 시작되었다. 경기도의 경기녹지재단은 옥상녹화사업(2005년), 자투리 공간 녹지 조성(2005년)으로 시작하여 경기정원문화 대상(2006년), 조경기든대학(2006년) 등 정원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 시기에 정원이라 할 수는 없지만 향후 공동체 정원문화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주민참여 도시녹화 운동들도 일어났다. 2008년 순천시는 생태와 환경 분야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선언하였다(이정록 2014).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는

2009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순천시를 선정하기에 이른다.

2) 제2기(2010~2014년): 정원문화 발아기

(1) 정원박람회 개최

‘2010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도시, 정원을 꿈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박람회이다. 정원 작품을 전시하는 일회성 정원 축제로 기획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원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독일 정원박람회를 벤치마킹하여 박람회에서 조성한 정원이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설계 · 시공하였다. 경기도는 이후 도시를 순회하며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원에 정원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원문화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조경계에서 행사를 주도하였고, 대규모 부지에 다양한 테마정원을 선보였다. 6개월 동안 440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박람회를 치른 이후 순천시는 정원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산림청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당해 산림청 10대 뉴스에 선정하고 이후 정원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추진하게 된다.

(2) 정원작가의 등장

2011년 5월, 환경미술가 황지해 씨가 ‘해우소 가는 길’이라는 한국적 주제 정원으로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아티즌가든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2012년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화원’이란 주제로 쇼가든 부문 금상과 전체 부문 회장상을 수상하고, 2023년에도 ‘백만 년 전에 날아온 편지’로 쇼가든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정원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이후 정원박람회와 코리아가든쇼가 정원작가의 등용문이 되었는데, 제1회 코리아가든쇼(2014년)의 대상과 최고 작가상 수상자가 원예학이나 조경학 전공자가 아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정원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며, 정원의 저변이 확대되고 새로운 영역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3) 공동체 생활 정원문화 전개

2013년 건국대학교 동아리 ‘쿨라워’가 게릴라 가드닝을 보여줌으로써 정원문화가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게릴라 가드닝은 1973년 뉴욕의 화가 리즈 크리스티가 친구들과 공터의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는 활동에서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영국의 리처드 레이놀즈가 집 주변 벼려진 땅을 화단과 정원으로 꾸며 개인 블로그에 올려 화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2012년 리처드 레이놀즈(Reynolds)의 저서 『게릴라 가드닝(2008)』의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우리나라

에도 게릴라 가드닝 운동이 일어났는데, 시민들이 도심의 자투리땅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회운동으로 전개되고 지자체 사업이나 기업 홍보 목적의 활동들로 이어졌다.

서울그린트러스트가 2010년부터 공동체 텃밭정원 주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말농장', '도시농부'라는 용어가 '텃밭정원', '커뮤니티 가든'으로 바뀌었으며, 공동체가 꽃밭과 채소 수확을 위한 텃밭을 결합한 정원을 가꾸는 새로운 도시문화로 형성되었다. 2012년에는 경기도 조경가든대학에 '텃밭정원' 코스가 추가되었으며, 도시농부의 일상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서울정원박람회에서는 요리사가 가든푸드쇼를 선보였다. 이밖에도 푸르네정원문화센터 오가닉가든 국제심포지엄(2012년), 경기도 농업기술원 한평텃밭정원 공모전(2014년), 국제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2014년)가 개최되었다.

이 시기에 지자체 중심의 공동체 정원문화 활동이 다수 전개되었는데, 광주시는 2010년부터 마을가꾸기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였다. 주로 지자체가 녹화 재료를 지원하고 정원 전문가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심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운영하였다. 정원 분야를 선도했던 경기도는 2013년 시민 정원사 인증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현장 활동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마을가꾸기, 도시농업 사업들과 연계하여 동네숲 조성, 골목정원, 텃밭정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졌다. 정원 분야 1호 사회적 기업 '가든프로젝트'는 공동체 활성화, 환경보호, 정원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4) 정원 단체 설립과 정원 잡지 창간

2013년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이 설립되고, 2014년에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설립되었다. 조경계에서도 정원에 관심을 가지고 2014년 (사)한국정원문화협회를 설립하고, (사)한국 조경학회에서는 정원학연구센터를 조직하여 정원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사)한국원예학회와 공동으로 '정원 대중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3년 5월, 국내 최초의 정원 전문잡지로 (주)한국조경신문의 월간 가드닝, (주)벽화수(현 우리꽃연구소)의 월간 가든인 (주)시가든의 계간지 Community Garden이 동시에 창간되었다. 이는 당시 정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방증하는데, 현재 월간 가드닝만 발간되고 있다.

3) 제3기(2015~2019년): 정원문화 성장기

(1) 산림청의 정원 관련 법제도 마련

산림청은 2015년 1월 기준 '수목원 조성 및 진흥법'에 '정원'

을 추가하여 '수목원 ·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고 7월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산림청이 정원 관련 국가사업을 전담하는 주체가 되었다. 또한,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 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6년 제1차 정원진흥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7년에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이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을 설립하여 국가수목원 운영, 정원산업 진흥, 정원문화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산림청은 정원 관련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전담 부처로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2019년부터 생활권 주변 국유지 등 유휴 부지와 공공 및 다중 이용시설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숲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2) 지자체의 정원사업 활성화

산림청의 법률 공포와 정원진흥계획 수립으로 정원 관련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정원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산림청의 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지역 경관 관리, 주민참여사업,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는데 정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그중에서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거쳐 정원 인프라를 갖추고 산 · 학 · 관 · 연이 연계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원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경기도는 마을정원 만들기를 시행하였으며, 정원문화박람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2016년부터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부산시, 인천시, 정선군, 구례군, 전주시 등에서도 마을정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곳이 생겨났다. 2019년에는 정선군에서 지자체가 아닌 지역주민 주도로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다.

(3) 국가정원 · 지방정원 · 민간정원 지정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국가정원으로 2015년 순천만정원이 1호, 2019년 울산 태화강정원이 2호로 지정되었다.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 ·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2019년 세미원과 죽녹원이 지정되었다. 지방정원이 면적 30만m² 이상, 녹지 면적 40% 이상, 주제원 5곳 이상, 정원 관리 전담 조직 구성, 방문자 안내 및 교육 전담 인력 8명 이상을 확보하고,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 관리 조례 요건을 충족시키면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정원은 2023년 현재 경기도 2개, 강원도 1개, 전라도

2개, 경상도 2개로 전체 7개가 지정되었다.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개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마련되었는데, 1호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 이후 2023년 8월 기준 103개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었다. 이처럼 민간 조직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개인정원 공개를 제도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정원주 입장에서 민간정원으로 등록해도 홍보 외에 큰 실익은 없다. 일부 정원주들은 정원 공개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조성아와 성종상, 2019).

(4) 정원산업 단체 설립

2015년 한국가드너협동조합이 법인이 되었고 2019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가드너협동조합은 순천을 중심으로 박람회, 경진대회, 페스티벌 등 정원 행사 운영, 정원 조성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8년 세종LH가든쇼, 중부지방의 실내정원 조성 등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18년에 (사)한국민간정원협회가 설립되어 민간정원 활성화와 수익 증진, 정원 소재 유통 개선, 정보 교류와 협력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정원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 민간정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원도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다. 2019년에는 정원과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 및 단체, 일반인, 학생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한국정원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5) 정원 전문 인력 양성

2016년부터 산림청은 가든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지역별 정원 현장 모니터링, 정원 조성, 정원박람회 자원봉사 등의 역할을 맡겼다. 또한, 지자체의 시민정원사 양성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원, 공원, 마을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에 재능 기부 형태로 봉사하게 하였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8년 영국왕립원예협회(RHS)가 승인한 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정원원예원론 자격(RHS Level 2 Qualifications in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Horticulture) 교육생을 양성하고 있다. RHS 교육은 20개월 동안 8과목의 강좌로 이루어지며, 우리말로 교육하지만, 영국 체계로 자격시험을 적용하여 영어 주관식으로 치러진다. 지자체의 시민정원사 교육보다 심도 깊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평가된다(유명의, 2023). 대학교에서도 정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순천대학교가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정원문화진흥사업단(2014~2019년)이 지원을 받아 정원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순천대학교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정원문화산업학과를 개설

하여 2018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4) 제4기(2020~2023년 현재): 정원문화 확산기

(1) 대중의 식물과 정원에 대한 관심 증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가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집합 금지, 여행 제한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취미로써 식물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홈가드닝, 플렌테리어, 반려식물, 식물집사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아파트에서 식물을 키워 판매하여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 영국 등 가드닝 선진국에서 정원 관련 산업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독일도 클라인 가르텐이라고 부르는 도심 속 커뮤니티 가든의 인기가 높아졌다. 이는 폴란드 이커머스 기업인 PICODI사가 2020년 4월 구글 검색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가드닝 검색량이 50% 증가하였다는 사실로 증명된다(한국조경신문, 2021. 3. 15).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보다 한적한 곳을 찾게 되자 코로나 이후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자연 속에서 동적 활동이 증가하였다(채진해 등, 2020). 이러한 배경에서 정원 활동이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국립수목원은 2021년 5개월 동안 의과대학, 정원 관련 대학, 비정부기구(NGO) 등 10개 기관과 함께 정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건강 치유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정원 활동이 사회적 약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원 활동 프로그램은 정원 디자인과 정원 조성, 식물 관리로 구성되었으며, 특수학교, 암센터, 치매 환자와 가족,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 장애 환자 등이 참여하여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경험하였다(한겨레, 2022. 1. 18).

(2) 정부와 지자체의 정원사업 본격화

2021년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이 발표되고 정원 분야가 그린뉴딜 등 정부 핵심 아젠다로 반영되었다. 정원의 기능이 개인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 발전과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높게 평가된 것이다. 산림청은 2025년까지 정원 인프라 2만 4천 개소 확보하고, 정원 산업 2조 원, 정원문화 참여 인력을 연 40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9년 시작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되고,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234개소를 조성하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2020년 시작된 산림청의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도심 속 유휴부지나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참여형 공모전인데, 정원 업계 진출을 모색하는 청년들이 정원 작가와 함께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한다. 청년들은 실무를 경

험하고, 지자체는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산림청, 2021).

2020년 '수목원·정원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글로벌 수목원'이라는 비전하에 개원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 전문가 양성, 정원식물 전시 품평회, 테마정원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 '정원누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스마트가든 등의 정원 정보, 정원작가, 반려식물키트업체 정보를 제공하며, 2022년에는 전국 수목원 정원 관광 지도를 제작·배포하였다. 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화훼 산업, 정원산업, 도시농업을 아우르는 영역의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 정원진흥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1개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많은 지자체에 정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자체는 산림청 지원을 받아 시민정원사, 가든서포터즈, 정원드림,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수행한다. 코로나 기간에도 전주 정원 산업박람회,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 철원군 가드닝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산림청의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울산 북구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등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고 알리는 행사들도 개최되었다. 순천, 서울, 세종, 울산, 해남, 부여, 광명, 전주 등은 '정원도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원문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울산시는 2022년 태화강 국가정원 내 1만 8천m² 규모로 세 계적인 정원가 피트 아우돌프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곳은 아우돌프가 조성한 정원 중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이며,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크다. 식재 작업에 울산 시민정원사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시민정원사들에 의해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년, 10년 만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다시 개최되었으며, 서울, 경기, 청주, 대구, 고양, 부산, 울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다.

(3) 정원과 첨단 기술의 접목

온도, 습도, 광량, 수분 공급을 제어하여 식물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든이 등장하였다. 산림청은 2020년 스마트 가든 조성 관리 지침서를 배포하고, 2025년까지 스마트 가든을 1,8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스마트 가든은 일터나 공공 공간의 폐적한 환경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정원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경관적 가치 외에도 식물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효과로 미래형 정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가정용 스마트팜 기계, 인공지능(AI)으로 식물 재배법을 알려주는 앱이나 식물 친화형 호텔도 등장하였

다. 2022년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사)정원디자인학회 주관으로 제1회 스마트 가든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와 함께 메타버스가 유행하면서 가상공간에 정원 구현이 시도되었다. 창덕궁 후원, 해남군 솔라시도, 산림청 메타버스 숲가꾸기 캠페인이 이에 해당한다. 조경 분야의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을 만들 수 있으므로, 게임과 메타버스 분야에서 조경인의 활동이 가능하다. (사)한국조경협회 내에 '그린스마트연구소'가 만들어지는 등 이에 대응한 움직임이 있다(한국조경신문, 2022. 4. 6.).

(4) 정원 방송 제작과 예술의 접목

2020년 EBS의 '소소한 행복 정원일기', KBS 다큐인사이트의 '인생정원', '아내의 정원', 2021년 KBS 다큐온의 '나의 정원, 우리들의 정원', KBS '자연의 철학자들', KBS 제주의 '정원의 발견', KBS 순천의 '오늘의 정원, 도시의 미래' 등 정원을 소재로 한 방송들이 제작되었다. 정원 방송이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되었지만, '오늘도 삽질'이라는 웹예능은 정원이 엔터테이닝 소재가 된 사례이다. 또한, 많은 유튜버의 정원 채널이 정원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비전문 지식의 유통과 확산은 우려된다. 2021년에 정원을 예술에 접목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상정원-시간의 정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메타가든', 소다미술관의 '우리들의 정원',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 프로젝트 '상상의 정원'과 같은 전시회들이 제공되었다.

(5) 대학교 정원학 전공 개설

대학교에서 정원을 전문 분야로 편성하는 움직임으로서 2018년 처음으로 순천대학교에 정원문화산업학과가 개설된 이후, 2020년부터 다수의 대학교에서 학과명이나 세부 전공명에 정원을 포함시키거나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정원 인력을 양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주로 조경학과나 원예학과에서 '정원'을 포함하여 학과명을 변경하거나 정원 분야 전공을 추가하는 양상이다. 2022년에 중부대학교에 최초로 정원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표 2 참조).

III.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특성

1. 정원문화 관련 용어

- 1) 정원을 조성하는 사람: 정원사, 정원가, 정원디자이너, 정원작가

정원의 꽃밭이나 수목을 가꾸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원사'는 유지관리 작업을 떠올리는 개념으로 통용

표 2. 대학교 정원 관련 학과와 전공 개설 현황(2023년 8월 기준)

대학	학과 및 전공	개설 시기
순천대학교	정원문화산업학과(재직자 특별전형)	2018년
중부대학교	정원문화산업학과(원격대학원 석사과정)	2020년
	정원학과(일반대학원 박사과정)	2022년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과 정원문화산업전공, 가드닝 전공	2023년
동국대학교	조경정원디자인학부(개편)	2021년
서울여자대학교	マイ크로 전공(학과) 정원디자인	2023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정원문화콘텐츠학과(미래문화유산대학원 석사과정)	2023년

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국외에서 정원사 교육을 이수하고 돌아와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정원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업역까지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 한편, 정원 분야 전문가를 일컫는 ‘정원가’는 논문에서 역사 속에 위대한 정원을 남긴 케이퍼빌리티 브라운, 윤선도와 같은 인물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피트 아우돌프와 같은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나 자신의 정원을 직접 가꾸는 일반인을 정원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정원가’는 취미와 업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적인 ‘정원디자이너’와 ‘정원사’를 포괄하는 명칭이 되었다.

‘정원디자이너’는 정원의 배치와 형태, 식재를 디자인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정원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아우르는 ‘정원작가’는 황지해 씨가 2011년 첼시플라워쇼 수상한 이후 등장하였다고 파악되는데, 정원박람회, 가든쇼 등에 초청되어 정원 작품을 만들거나 정원 디자인 공모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원 디자인을 예술품 창작의 영역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원작가가 조성한 정원을 지칭하는 ‘작가정원’은 보편적인 명칭이 되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원누리 플랫폼에서 정원작가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원작가를 “국내외 정원박람회 등의 입상 또는 초청된 실적이 있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2) 정원문화 활동: 가드닝, 정원박람회, 가든쇼, 정원 페스티벌, 정원 콘테스트

정원을 소유한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원예’가 통용되었던 단어인데, 2000년대에 ‘가드닝’이라는 용어가 매일경제(2004년), 동아일보(2005년), 레이디경향(2006년)의 기사 제목으로 등장하고, 『맘 먹은대로 살아요. 티샤튜더(2004)』의 저자가 ‘가드닝의 대가’로 표현되었다. 또한, 논문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셀프가드닝을 위한 시공과 비용산출(김광두와 윤부영, 2005)’, ‘가드닝 산업과 연계한 화훼이용 활성화 방안(황환주, 2010)’, ‘2010 국내 가드닝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오

경 등, 2011)’에서 ‘가드닝’이 사용되었다. 지금 ‘가드닝’은 국어 사전에 등재되고 통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2017년까지 개최된 정원행사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이호우, 2018) 결과를 보면, 행사명은 ‘정원박람회’, ‘가든쇼’, ‘정원 페스티벌’이지만 모두 전시 홍보, 컨퍼런스 및 교육, 시민 체험, 문화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정원박람회는 정원 정보 제공과 산업체를 홍보하며 도시 재생적 기능, 공원 활성화,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가든쇼와 정원페스티벌은 정원 공모와 전시에 중점을 둔다. 또한, 정원박람회는 대체로 단기간 운영되고 페스티벌과 가든쇼는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장기간 운영된다. 이호우(2018)와 진혜영 등(2020)은 세 가지를 ‘정원박람회’라고 통칭하거나 한 가지로 분류하여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양상이다.

반면에 ‘정원 콘테스트’는 소유주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는 행사이다.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을 관광 자원화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전국 규모인 산림청의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경기정원문화대상’, 세종시의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전라남도와 담양군의 ‘예쁜 정원 콘테스트’, 강화군의 ‘정원 콘테스트’ 등이 있다.

2. 정원문화 활동과 주체

1) 정원 조성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데 물리적 정원 조성의 기여가 컸는데, 초창기에는 수목원, 식물원, 실내정원 등 개인이 만든 정원으로 시작되었다. 공공에서는 도시녹화운동으로 시작하여 순천시가 국가정원을 조성한 이후 많은 지자체들로 확산되었다. 산림청은 국가정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산하의 국립수목원은 어린이정원, 소리정원, 산새소리정원, 고사리정원 등의 테마정원을 조성하였다. 지자체는 지방정원을 조성하며, 서울 그린트러스트, 사회적 기업, 가드너협동조합 등 민간단체의 참

여로 지역에 커뮤니티 가든, 텃밭정원과 같은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정원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이 조성하는 민간 정원도 증가하고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한 정원작가와 학생들의 작품으로 많은 정원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단지에 정원을 조성하여 공동주택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2) 정원 전시와 행사

정원문화 선각자들이 개인적으로 정원 축제와 공모전을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에서 2010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시작으로 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산림청은 2014년부터 코리아가든쇼를 개최하고 있다. 이제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고 정원 관련 기업, 협회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정원과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2012년), 생활정원공모전(2012년부터)을 개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부터 LH가든쇼, 한국도로공사도 2018년부터 정원박람회와 정원디자인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새로운 정원작품 조성 외에도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지역의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여 정원 문화자원으로의 활용을 꾀하고 있다.

정원박람회, 가든쇼, 정원 콘테스트 같은 전시와 행사가 정원작가 그룹을 공고하게 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장이자 정원 디자인을 향상시키며 정원문화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정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영국 첼시플라워쇼와 같은 대표적 국제 행사에 다양한 소수 모임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3) 정원 관련 법제도⁴⁾

국가기관으로서 산림청은 법률 제정, 재원 확보,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원문화를 선도할 제도적 근거를 갖추었다. 산림청이 마련한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원진흥사업 및 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1차 정원진흥계획(2016~2020년)에 정원문화를 확장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담았다. 2016년에 설립한 '한국수목원관리원'의 명칭을 2021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국가수목원 운영, 정원산업 진흥, 정원문화 활성화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으로 구분된 정원들이 조성되었다. 산림청은 2021년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5년간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산림청, 2021).

지자체들도 지역의 정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0년에는 모든 지자체에 정원 조례가 제정되었

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시민정원사, 가든서포터즈, 정원드림,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정원 콘테스트, 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정원도시'를 선언하여 도시생활권 내에 정원과 녹지를 늘리려는 구체적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다.

4) 정원 교육

정원 교육은 초기에 사설 아카데미, 경기녹지재단,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의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경기도 조경가든대학이 설립되면서 지자체 중심의 전문 정원교육이 시작되었고,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민조경대학, 시민정원사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원 교육을 시행하였다. 지자체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지역의 정원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산림청은 가든서포터즈를 선발하고 수목원을 통해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책자를 발간하였고,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정원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순천 국가정원은 RHS 정원원예원론 자격 교육생을 양성하고 있다.

2018년 순천대학교에 정원문화산업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정원에 대한 정규 교육 과정이 시작되었다.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등에 원격대학원, 재직자 특별전형처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생겼고, 2022년에는 중부대학교에 정원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5) 정원 연구 개발

국립수목원은 자생 산림생물자원 발굴·보전 및 활용, 정원 연구 및 정원문화 확산 정책 개발에 주력하여 정원 관련 연구 간행물을 많이 축적하였는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건이 해당되며, 정원식물, 전통정원, 정원 모델에 집중되고 현대 정원 경향, 정원의 가치, 정원 소개, 식물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⁵⁾ 또한, 정원을 매개로 협동조합, 협회, 학회 등 다양한 유형의 단체가 설립되었고, 이들은 정원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는데, 메타버스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스마트 가든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원'이 포함된 제목의 국가 R&D 보고서를 검색한 결과, 농업(원예) 분야 14건, 조경 분야 4건, 자연유산 분야 1건으로 농업 분야에서 정원 연구를 많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수행한 주체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연구기관 12건, 서울시립대학교 등 대학 4건, 한국정원디자인학회 등의 학·협회가 3건이다. 연구보고서의 주제로는 정원식물, 정원 모델이 많았고, 전통정원, 정원설계, 스마트가든, 정원산업, 식재 디자인 포함되었다.

6) 정원 정보 확산

인터넷 환경이 정원 정보의 확산에 기여했는데, 초창기 식물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해 정원식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이후 정원 전문 잡지가 발간되어 심도 있는 정보가 전파되었고, 정원작가들이 식물과 정원 서적들을 출판하였다. 개인이 정원을 가꾸는 삶을 보여주고 지역의 정원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SNS를 통해 휴식과 여가 활동의 장으로서 정원 정보가 유통되었다. 정원박람회와 가든쇼와 같은 행사가 정원 정보를 확산시켰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정원식물, 정원 모델, 정원 만들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정원 정보의 확산에는 일반인, 전문가, 출판사, 학·협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여한다.

살펴본 여섯 가지 정원문화 활동은 산림청과 농업진흥청의 산하기관과 지방정부로 대표되는 정부·공공기관, 그리고 개인, 기업·협동조합, 대학교,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이 주체가 되어 네 개 시기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I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대 정원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그동안

축적된 자료에서 정원 관련 주요 사건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시간 순서로 배열하고 해석함으로써 현대 정원문화의 전개 양상과 특성을 이해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를 전개한 세 가지 핵심 사건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20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2015), 코로나 팬데믹(2020)을 경계로 하여 4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2009년까지인 제1기 정원문화 태동기는 정원이 일부 개인 취미에 머물고 대중 문화로 드러나기 전 시기로서 사설 식물원 개원, 실내정원 출현, 식물과 정원 정보 대중화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정원 선각자들의 기여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의 녹지 사업 형식의 정원 관련 공적 활동이 개시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 제2기 정원문화 발아기는 일부 지자체와 민간의 활약으로 정원문화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박람회 개최, 정원작가 등장, 공동체 생활 정원문화 전개, 전문단체 설립과 전문잡지 창간 등 다방면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인 제3기 정원문화 성장기는 중앙정부의 공적 지원으로 정원문화가 급성장한 시기로 산림청의 정원 관련 법제도 마련, 법적으로 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 지정, 정원산업 단체 설립, 정원 전문인력 양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2023년 제4기 정원문화 확산기는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양상의 정원문화



그림 2.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 활동의 전개와 주체별 역할

가 발전한 시기로, 팬데믹 초기에는 공적 정원문화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대중의 식물과 정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역설적으로 정원문화가 더 깊숙이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원사업 본격화, 정원과 첨단기술 접목, 정원과 방송 예술 접목, 대학교에 정원학 전공 개설 등 정원문화가 여러 영역에서 발전하였다.

둘째, 정원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유지관리를 떠올리게 되는 '정원사'와 구분되는 설계 영역을 담당하는 '정원디자이너', 설계부터 시공까지 예술성 있는 정원을 만드는 주체로서 '정원작가'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역사 속 전문가를 지칭 하던 '정원가'는 현존 인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원 활동과 관련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가드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국어사전에 등재된 보통명사가 되었다. 전시와 이벤트 성격의 '정원박람회', '가든쇼', '정원페스티벌'과 소유주가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는 '정원 콘테스트'가 우리나라 정원문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전개 과정에는 정원작가, 시민정원사, 기타 정원 활동가, 조경 전문가 등 개인과 사회적 기업, 조경설계·시공사, 건설사, 언론사 등 기업, 대학과 연구 기관, 그리고 학회, 협회, 센터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산림청을 필두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들이 기여해 왔는데, 이렇게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정원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를 마련한 점도 타 국가들과 다른 모습이다. 정원 선진국에서 정원이 도시계획이나 주택법, 농촌 및 어업법 등에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⁶⁾, 오랜 역사를 지내오며 주로 민간이 주도한 영역에서 정원이 발전해왔다. 산·학·관·민이 연계된 지역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정원문화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원문화 활동은 정원 조성, 전시와 행사, 정원 관련 법제도, 정원 교육, 정원 연구 개발, 정원 정보 확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초창기에는 일부 개인들이 정원 조성, 전시와 행사, 교육 등의 정원문화를 이끌었으나, 지방정부, 산림청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원문화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한 순천시를 모델로 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 개선과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정원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에 많은 정원도시가 선언되고 다수의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있다.

연구에서 접근한 한정된 정보 내에서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 활동을 다루었지만, 정원문화를 전개한 주요 사건들을 통찰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정원문화가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요인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였는지 파악하였다. 향후 새롭

게 추가되는 정원문화 활동들은 새로운 범주화가 가능할 것이며, 본 연구가 취한 정성적 연구 방법에서 나아가 다각도의 데이터 분석으로 정원문화를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 정원문화의 전개 속도와 양상은 영국, 프랑스, 독일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랜 기간 천천히 민간 주도로 정원문화가 발전한 정원 선진국과는 달리 공공의 자금과 실천으로 속성 성장하였다. 전국에 정원이 조성되고 정원 관련 행사가 개최되는 등 외형적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되었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정원을 누리기 힘든 주거환경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정원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여 공동체 정원문화로 자리매김하여 직접 정원을 가꾸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공적 영역의 인프라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단기간에 고속 성장한 정원문화의 기틀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향유하는 삶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탄소중립 실천,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탄력성, 인간성 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주 1. 빅카인즈는 뉴스수집시스템, 분석시스템, 저장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전국 일간지, 경제 일간지, 지역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매체로부터 1990년 이후 기사를 수집하여 형태소 분석, 개체명 분석,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주 2. 시기별 주요 정원문화 활동을 분류하고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수록하였으며, 연구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분류하였으나 지면의 한계상 주요 정보로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주 3. 실내조경 설계기준의 설정(정혜인, 1983), 호텔 건물을 사례로 한 실내 조경 설계 제안(신인환, 1986), 아파트 실내조경을 위한 기초 연구(서병기, 1987), 실내조경을 위한 식물 활용방안(김숙중, 1988), 서울지역 대형건물의 로비를 중심으로 한 실내조경식물의 활용실태 연구(박상현과 심경구, 1989) 등.

주 4. 산림청이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에 기여하게 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법제도를 정원문화 활동에 포함하였다.

주 5. 『한국의 전통정원(2011)』, 『가드너 매뉴얼(2014)』, 『우리꽃으로 만드는 정원식물도감(2016)』, 『가보고 싶은 정원 100(2017)』 등.

주 6. 미국은 2014년에 커뮤니티 가드닝과 영양공급법을 제정하여 도시농업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순수하게 정원을 위한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배준규, 2022).

References

1. 강미나, 박미선, 이길제, 윤성진,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허소영, 전혜란, 문소희(2022)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국토교통부 보고서.
2. 권진숙, 김영제, 신한나, 배준규(2021) 텔파이 기법을 이용한 정원문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7(4): 333-345.
3. 김광두, 윤부영(2005) 아파트 베란다 셀프가드닝을 위한 시공과 비용 산출. 한국실내조경협회 간행물. pp. 140-149.
4. 김숙중(1988) 실내조경에 있어서 식물 활용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순기, 김한배, 이상우, 이제호, 임의제, 최정민(2023) 조경개념사전. 도서출판 집.

6. 김오경, 김태진, 김학범(2011) 국내 가드닝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3): 37-47.
7. 김원기(2015) 실내조경의 이해와 활용. *건설기술* 2015(상반기): 61-68.
8. 김태원, 김건우(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효과 인지 비교 연구: 2013, 2023년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51(6): 1-11.
9. 박미옥(2018) 정원과 공원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인식 비교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6(5): 1-9.
10. 박상현, 심경구(1989) 우리나라 실내조경식물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대형건물의 lobby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7(1): 43-54.
11. 박세영(2021)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 인식 및 정원진흥계획 평가연구.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12. 배준규(2022) 정원산업 동향과 전망. 2022 산림·임업 전망 발표자료, pp. 453-476.
13. 산림청(2016)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16~2020).
14. 산림청(2021)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
15. 서병기(1987) 아파트 실내조경의 기초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신인환(1986) 실내조경에 관한 설계 제안: 호텔 건물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심주영, 조경진(2015) 도심주거지에 나타나는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에 대한 고찰: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3(2): 1-12.
18. 안명준(2023) 동아시아 정원문화에 기반한 통합적 정원도시론의 모색.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1(3): 13-26.
19. 우경숙, 서주환(2016) '정원'의 시대적 정의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4(5): 1-11.
20. 유명의(2023) 순천만국가정원의 정원교육프로그램 사례에 관한 질적 조사 연구: 'RHS 인증 정원원예원론 자격 교육'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26(2): 117-128.
21. 이광희(2021) 정원문화의 변천과 정원도시조성 추진전략 수립. *산림경제연구* 28(2): 1-13.
22. 이정록(2014)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책화 과정과 동인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6): 849-864.
23. 이호우(2018) 한국 정원박람회의 프로그램 특성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사)한국조경학회(2014) 제2회 정원학 심포지엄 "정원학의 새로운 지평" 자료집.
25. 정혜인(1983) 실내정원 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조동범, 김수란, 김근호(2007) 도시 단독주택 정원의 공간적 특징과 유지 · 관리에서 보이는 거주자의 정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6): 54-65.
27. 조성아, 성종상(2019) '민간정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7(6): 129-138.
28. 조제환(2018) 진화론 관점에서 본 지식창조 시대의 정원문화에 대한 고찰: 진화정원론의 시작.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4(2): 63-71.
29. 조혜령, 성종상(2016) 영국 정원문화의 대중화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4(3): 47-55.
30. 진혜영, 송수정, 이경미, 정미애, 조민자, 하유정, 현종영(2020) 2020 정원산업 요소 및 현황. *국립수목원*.
31. 채진해, 조민준, 김복영(2020)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COVID-19 전후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의 시민 이용행태 및 관심도 변화. 2020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32. 한겨례(2022. 1. 18.) 국립수목원 "정원 활동, 코로나블루 등 치유 효과".
33. 한국조경신문(2016. 5. 4.) 홍경숙 원예예술춘 회장 '정원문화 공로상' 수상.
34. 한국조경신문(2021. 3. 15.) 코로나19가 바꾼 중요 키워드 '정원'… 세계는 가드닝에 집중.
35. 한국조경신문(2022. 4. 6.) [조경시대] 메타버스, 혀상이 아닌 미래.
36. 횡환주(2010) 가드닝 산업과 연계한 화훼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지* 2010(5): 34-35.
37. YTN(2021. 8. 21.) 독일, 코로나 시대 도심 속 정원 '클라인가르테' 인기.
38. Jeong, S., G. Lee, and S. Kim(2018) A study on the tendency for design trends at the garden expos: focusing on the 2015 Korea One-pyeong Garden Expo, Gyeonggi Garden Culture Expo, and the Seoul Garden Show. *Journal of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12(1): 49-60.
39. Reynolds, R.(2008) On Guerrilla Gardening. *여상훈(역)*, *케릴라 가드닝*. 파주: 들녘, 2012.

Received : 5 January, 2024

Revised : 15 March, 2024

(1st)

27 March, 2024

(2nd)

Accepted : 27 March, 2024

3인의명 심사필